

대구주보

주님 수난 성지 주일
2013.3.24.(다해) 제1828호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매진합니다

편집 및 발행 | 천주교대구대교구 문화홍보실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3동 225-1 (053)250-3048~9 <http://www.daegu.jubo.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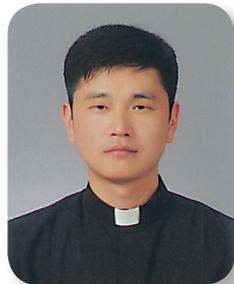
교황 프란치스코 성하의 착좌를
다함께 기뻐합니다!

오늘의 전례 3면 참조



재잘거림

이병훈 요한 신부 | 구미종합사회복지관 관장



“트위터”(Twitter)는 “What are you doing?”(지금 뭐하노?)라고 적혀있는 빈 공간에 140자 이내의 짧은 글들을 주거나 받거나 하는 것이다. 그 모양이 참새가 쉴 새 없이 재잘거리는 것 같아 “트위터”(재잘거림)라고 한다. 스마트폰 덕분에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사람에게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서로 재잘거릴 수 있으며, 나의 재잘거림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질 때마다 외롭지 않고 즐겁다. 마침내는 같은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무리를 이루어 요구하고 힘을 과시한다. 이 트위터가 오바마 대통령의 당선에 영향을 줬다고도 하고 한국의 정치에도 큰 변동을 일으켰다고도 한다. 어떻게 사람들은 사람들과 재잘거리고 싶어 한다. 하느님께서 보시기에도 아담이 외로워 보여서 하와를 창조했다고 하지 않는가?

예루살렘 입성 때 사람들은 큰 소리로 재잘거렸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리사이들의 불편한 소리에 “이들이 잠자코 있으면 돌들이 소리를 것이다.”(루카 19,40)라고 하셨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는 모두가 조용히, “멀찍이 서서 그 모든 일을 지켜 볼” 수밖에 없었다(루카 25,49). “너 어디 있느냐?”(창세 3,9. Where are you?)라며 아담을 찾아 나서던 하느님의 재잘거림은 “돌 속에” 묻혀버렸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재잘거림들이 있다. 그리고 각자 원하는 대로 모여 힘을 이루어 마치 소리가 큰 것이 옳은 것처럼 요구하고 있다. 그 속에서 아무 소리 없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그리스도인은 정말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 교회

조차도 하느님 나라의 가치를 재잘거리는 것이 힘든데 그리스도 신자들은 오죽하랴? 신자들이 삶 속에서 아무런 말 없이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은 힘듦을 지나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있다. 마치 스승에 대한 죄책감으로 도망가지도 못하고 눈치 보며 “멀찍이 떨어져서 불을 쬐던” 베드로처럼,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재잘거리지도 반대로 멀리 도망가지도 못하는 형편이다. 지금 우리에게 하느님께서 “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재잘거리신다면 우리는 큰 소리들에 “두려워 숨었습니다.”(창세 3,10)라고 할지도 모른다.

“멀찍이 떨어져서” 지켜보던 모세의 누나 미리암과 “멀찍이 떨어져서” 외치던 나병환자 열명과 죄 많은 세리의 기도는 우리에게 어떤 길을 보여준다. 아무 것도 아닌 나병환자와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외치던 세리는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재잘거리 치유받고 용서받았다. 가슴 졸이던 미리암은 기회가 닿자 달려가 준비된 재잘거림으로서 공주를 설득하여 모세를 살렸다. 하느님께 재잘거리 치유 받고 용서 받은 기쁨은 내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느님에 대해 재잘거리고 싶도록 만든다. 그리고 언제든지 그 기회를 보고 준비하게 만든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간절한 재잘거림과 기회가 닿는 대로 사람들에게 재잘거리고 행동할 수 있는 준비이다. 이 두 가지를 통해 주님께서 침묵의 돌 속에서 일어나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우리의 일들을 의미 있게 해주실 것이다. **필름**



교구장 대주교님의 교황님 선출 경축 메시지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새로운 교황님께서 예상보다 일찍 선출되셔서 기쁘고,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최초의 라틴 아메리카 출신 교황님으로서 인류를 하나로 묶는 데 더 큰 기여를 하시리라 기대합니다. 또한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의 겸손과 참된 사랑 실천, 평화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는 모습을 새 교황님을 통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르헨티나의 이탈리아계 가정에서 태어나 자라신 새 교황님께서서는 세계가 하나의 가정을 이루고 모든 이가 가족처럼 살 수 있는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평화의 도구’가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가톨릭교회뿐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새 교황님께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종교 간, 민족 간 분쟁으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빈부격차나 환경파괴와 같은 어려운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하시고 또 분열된 이들을 일치하게 하는 구심점이 되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전 세계의 영적 지도자로서 무거운 짐을 지시는 교황님을 위해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교황님의 짐을 마음으로 함께 지고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새 교황님의 탄생을 함께 기뻐하며, 교황님께서 교회와 세상의 참 목자이자 평화의 사도로서 하느님 백성을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교구민 모두의 열심한 기도를 당부 드립니다.

2013년 3월 14일

천주교 대구대교구장 조환길 타대오 대주교

† 오늘의 전례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루카 22,14—23,56 참조)

예수님께서서는 끝까지 용서하십니다. 세 번이나 당신을 모른다고 한 베드로도, 가장 어린 요한과 여자들만 빼고 모조리 도망가 버린 제자들도, 당신을 팔아넘긴 유다도, 그리고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불한당들도.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도 그렇게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느님의 자비를 우리 그릇으로 재려 하기 때문에 잘 믿지 않습니다.

입당식 복음 루카 19,28—40

제1독서 이사 50,4—7

제2독서 필리 2,6—11

수난 복음 루카 22,14—23,56.

화답송 ◎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영성체송 아버지, 이 잔이 비켜 갈 수 없는 것이라서 제가 마셔야 한다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교황 사임 유감

- 역대 교황님과 한국교회 ② -

최홍길 레오 신부 | 수성본당 주임



바오로 6세는 1968년 79위 순교복자에 이어 한국 순교자 24위에 대한 시복식을 거행하여 한국교회가 순교복자 103위를 모시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또한 1963년 대한민국과 정식 외교관계를 수립했을 뿐 아니라 1969년에는 김수환 대주교를 추기경으로 임명하였다. 복자 요한 바오로 2세는 두 차례나 한국교회를 방문하여 우리나라와의 특별한 인연과 친밀함을 드러내셨다. 1984년 한국교회를 사목방문하여 시성식을 주례, 103위 한국 순교 성인 탄생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안겨주셨다. 또한 1989년 10월 다시 방한하여 제44차 서울 세계성체대회를 주재하셨으며 한국과 한국민에 대한 각별한 사랑과 관심을 표현하였다. 요한 바오로 2세의 두 차례 방한은 한국교회가 성장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과거 ‘천주교 요리문답’ 책을 보면, 교황은 지상교회의 최고목자로서 ‘볼 수 있는 으

뜸’으로 설명하고 있다. 교황청 연감에는, ‘로마의 주교,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 사도의 우리머리인 베드로의 후계자, 전 세계 가톨릭 교회의 수장, 서유럽의 총대주교, 이탈리아의 수석대주교, 로마 관구대주교이자 수도대주교, 바티칸의 주권자’라고 하며 가톨릭 교회의 3가지 기능인 교도권, 사제직, 사목직

의 최고 권위자로 서술되어 있다. 교황성화의 사임을 계기로 다시 한 번 ‘한 때가 되어 한 목자아래’ 이 시대 교회를 사는 뜻을 새기며 언제나 만사를 좋게 안배하시는 하느님 섭리의 손길을 체감한다.

내년으로 본당설정 50주년을 맞이하는 수성본당에서는 금년도 본당달력을 별도로 제작, 배포하였다. 본당 50년 내력과 교구와 한국교회와 연관된 자료와 교구설정 이래 역대 교황님의 사진자료를 담아 과거와 현재 교회상을 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준비한 것이다. 본당달력을 한 장 한 장 들쳐보며 깊은 상념과 묵상과 기도 가운데 교황님의 여생이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길 기도하며, 한국교회의 수호자이신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 대전에 교회발전과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현재와 장래를 의탁하며 천상 전구를 빈다. **궤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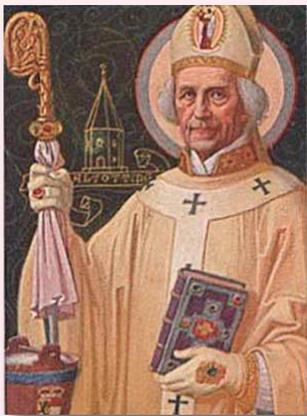
어느 판사 이야기

빵집에서 빵을 훔쳐 절도 혐의로 기소된 노인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도 있으신 분이 염치없이 빵을 훔쳐 먹고 싶었습니까?” 눈물을 글썽거리던 노인은 “죄송합니다. 사흘을 굶었더니 눈에 보이는 게 없었습니다. 배고픔을 참지 못해 저도 모르게 그만 손이 갔습니다.”라며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판사는 잠시 후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무리 사정이 딱하다고 할지라도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을 잘못입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고 예외가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에게 1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1920년대 당시로서는 10달러가 큰 돈이었습니다. 노인의 사정이 너무도 딱해 판사가 용서해 줄 것으로 알았던 방청석에서는 인간적으로 너무 한다고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판사는 자신의 지갑에서 10달러를 꺼내들더니 “그리고 그 돈은 내가 내겠습니다. 이토록 배고픈 사람이 이 도시에서 헤매고 있었는데 내가 그 동안 너무 좋은 음식을 배불리 먹은 벌금으로 내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판사는 “이 노인은 이곳 재판장을 나가면 또다시 빵을 훔치게 되어 있습니다. 빵을 훔친 것은 오로지 이 노인 한사람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살기 위해 빵을 훔쳐야만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고 방치한 우리 모두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법정에 앉아계신 여러분들께서도 그 동안 좋은 음식을 먹은 대가로 십시일반 동참해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이 놀라운 판사의 선고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며 그렇게 즉석에서 거두어진 47달러를 노인에게 주도록 했습니다. 노인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이제는 작은 일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결코 남의 물건을 훔치는 짓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인사를 하며 법정을 떠나갔습니다.

공의하신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죄 때문에 멸망하는 것을 차마 보실 수 없어 우리가 받을 벌을 아드님께서 대신 받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 위에서 하느님의 공의와 사랑을 모두 충족시키신 것입니다. **필독**

금주의 성인



성 루페르트(3월 27일)

우리 교구의 자매 교구인 잘츠부르크교구의 초대 교구장이셨던 루페르트 성인께서는 독일에서 가장 열심히 선교하신 분이시다. 보름스의 주교로서 바이에른의 레겐스부르크에서 선교사로 활동하시던 성인께서는 알티팅 지방에서 성공을 거두자 선교 영역을 다뉴브 지역까지 펼쳐나가셨다. 성인의 선교 중심지는 잘츠부르크였는데 당시 로마군대가 주둔한 군사기지였던 유바툼이란 작은 동네의 소금광산을 개발하여 도시를 건설하시고 이곳에 주교좌를 건립하셨다. 잘츠부르크란 도시

이름도 성인께서 직접 지으셨다고 전하는데, '소금의 도시'라는 뜻이다.



†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3월 29일 금요일은 (故) 전달출 토마스데아퀴노 신부님 3주기입니다.

■ 교황 선출 감사미사



교구장 대주교님께서는 3월 17일(일) 오전 11시 주교좌계산성당에서 교황 선출 감사미사를 교구 사제 공동 집전으로 봉헌하셨다. 교구장 대주교님께서는 이날 미사 강론을 통해 “세속적이며 물질만능주의가 판치는 이 시대에 어울리는 분을 보내주신 것으로 믿는다. 우리 모두 새로운 교황님의 뜻을 알아듣고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당부하셨다.

■ 칠곡시니어클럽 개관식 및 2013년 노인일자리사업 발대식



교구장 대주교님께서는 3월 14일(목) 오후 2시 사회복지법인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 칠곡시니어클럽 개관식 및 2013년 노인일자리사업 발대식에 참석하시어 축복하셨다.

기사 및 사진 제공: 월간 <빛>

■ 한중친선협회 대주교님 격려미사



교구장 대주교님께서는 3월 16일(토) 오후 6시 계산문화관에서 한중친선협회 격려미사를 봉헌하셨다. 교구장 대주교님께서는 이날 미사 강론을 통해 “어려운 환경에 있는 중국교회와 교우에 대하여 천주교 한중친선협회가 평신도 사도직으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임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셨다.

가끔 빈정대는 경우도 있지만

박성규 엘리지오



미사안내

구미지역 밀알회미사	3월 25일(월) 오전 11시	도량성당
대구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3월 25일(월) 오전 11시	주교좌계산성당
오순절평화마을 후원회미사	3월 25일(월) 오전 11시	수성성당
1대리구 교정사목후원회 월례미사	3월 26일(화) 오후 2시	주교좌계산성당

성소 | 피정

베네딕도회 다락방 성소 모임

일시: 매월 첫째 주 일요일 11:00
 장소: 대구투스평포교성베네딕도수녀원
 문의: 313-3431 / (010)8519-3431

성 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

성소자 성주간 체험

기간: 3.28(목) 16:30~31(일) 14:00
 장소: 성 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
 대상: 고등학생~만 32세 이하 미혼 남성
 문의: (010)8353-2323

성 골롬반 외방선교회 성소자 피정

일시: 4.7(일) 10:00~17:00
 장소: 골롬반 본부
 대상: 해외선교사제에 관심있는 젊은이
 문의: (010)6818-3737

예수 마음기도 1박 2일 피정

일시: 4.6(토) 16:00~7(일) 17:00
 회비: 5만 5천 원
 문의: 한티순교성지·피정의집
 (054)975-5151

거룩한 독서 피정

4박 5일: 4.24(수)~28(일)

가족 피정: 5.4(토)~5(일)

문의: 연화리 피정의 집
 (054)973-4835

베네딕도수녀회 성삼일 전례 피정

기간: 3.28(목) 17:00~31(일) 14:00
 장소: 베네딕도 영성관
 회비: 14만 원
 문의: 313-3425 / (010)7103-3425

가정성화를 위한 꽃동네 성령 피정

기간: 4.20(토) 11:00~21(일) 16:00
 장소: 음성꽃동네 사랑의 영성원
 회비: 5만 원
 문의: 음성꽃동네 (010)5490-5345

천생연분 피정(춘천 교구)

오상철신부의 천생연분에서 인연을 찾으세요. 초혼·재혼 수시접수 중
 네이버카페: 모곡 피정의 집 참조
 문의: (033)434-4204

평창 성필립보생태마을 환경 피정

기간: 7.22(월)~8.16(금) 2박 3일
 대상: 초·중·고등부 주일학교
 기간: 8.16(금)~25(일) 2박 3일
 대상: 가족, 친구 단위 / 8만 원(6식)
 문의: (033)333-8066

성소 상담 및 체험 피정

일시: 평일 또는 주말
 대상: 18~34세 미혼여성
 문의: 예수성심시녀회 수녀원
 (010)2649-2045

교육 | 모집

성경인물과 함께 하는 성경 공부

기간: 4.5~6.28(12주) 매주 금
 14:00~16:00 / 회비: 6만 원
 장소: 바틀로교육센터(흙피참조)
 내용: 마태오 복음과 성경인물
 문의: 783-9817 / (010)3360-9817

살레시오회 돈보스코직업전문학교 학생 모집

대상: 만15~23세 남, 기계조립 80명
 내용: 기계가공, CAD/CAM, 인성교육
 특징: 교육비 무료, 수당지급, 고점반 운영, 방통고 편입학, 취업알선, 면접전형
 문의: (02)828-3600

제주도 관광 안내

가족, 효도, 단체 관광 및 성지안내 차량, 호텔, 펜션 예약 가능
 주관: 제주교구 운전기사사도회
 문의: (064)758-6476 / (010)4566-6476

세란아동발달상담센터
 보건복지부 공식 바우처서비스 제공기관

서비스 대상
 발달지연, 학습부진, 난독증, 아동우울증, 인터넷(게임)중독, 사회성부족, 틱장애, 감각통합장애, ADHD, 언어발달지체, 발음장애, 말더듬 등

원장 : 김형우(부, 하비에크) ☎ 053)767-5227
 www.seran.or.kr

무료상담, 서비스 비용 중 매월 10~22만원까지 국비지원 가능

건어를 호성상회
 (서문시장 내 주차빌딩 맞은 편)

김, 멸치, 산모용 미역, 안주, 반찬류

배호성(헨리고), 박필교(울리안나)

☎ (053)255-9077
 010-9447-5193

곽연신의원 이비인후과

진료과목 - 성형외과 · 소아청소년과

의학박사/원장 신재훈(루카), 광동석(아우구스티노)
 교수수 전문병원(축농증, 비염, 고글이, 코성형)

(1호선 성당역 3번 출구)

☎ (053)638-7582(치료빨리)
 http://www.ksnose.com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병원

안심내과

<30년 전통의 (구)이상계 내과>
 내과 전문의 6인 진료 **765-3771**

심장·순환기, 소화기·내시경 전문
 공단검진, 5대암검진, 각종 종합검진

이상계(바오로), 김영섭(베드로), 김지영(대견안드레아)
 들안길 네거리 ~ 황금성당 사이

2007 ISO 9001-2000 품질관리 인증업소, 그 명성과 저부심

엄선된 최상급 식재료와 올리브유, 식용성 기름만을 고집합니다.
 품격높은 비즈니스 모임, 귀족들만 최고의 상견례 명소

차글성

대표 : 정경숙(스텔라), 황기철(요한)

☎ (053)767-6700 4층 48구 홀로움 LG엔터 홀

스피치 토크의 가장 핵심이제!

Speech Kim 스피치킴

스피치킴 교육

리더십&발표력&자신감

스피치킴의 특별한 전략을 배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
 프리젠테이션, 입시·취업 면접, 화술·화법
 대상 : 유치부~성인

스피치킴 교육 본원(대백 프라자 옆) T.053)421-0213
 NAVER 스피치킴 교육 | 검색: 김민지(사바나)

장윤제 연합치과

뉴욕대학교 임플란트과 임상교수
 원장 장윤제(바르나바)

대구은행 본점 맞은 편
T. (053)752-9797

김영표버섯명가
 www.pogokim.com

- 유기농버섯(표고·상황) 재배
- 체험 학습(견학·교육) 농장
- 버섯이전전문점 (Slowfood)

☎ 053)852-7576 남경화(헤레나)
 영남대학교역에서 경산C 방향 5Km 위치

행사 | 모임

2013년 성소주일 대신학원 개방

일시: 4.21(일) 10:00~16:00
 장소: 남산동 유스티노 교정
 대상: 교구 내 주일학교 학생 및 청년
 문의: 250-3071
 신청서는 본당으로 공문 발송합니다.

제3차 성경 통독 피정

기간: 4.27(토) 13:30~28(일) 16:00
 장소: 베네딕도 영성관
 회비: 5만 원 / 신청마감: 4.19(금)
 접수: 대구 508-10-448845-1(남회정)
 문의: 성서사도직 250-3082
 cafe.daum.net/biap

교구장기 교회 및 직장테니스대회

일자: 5.17(금)
 접수마감: 4.12(금)까지
 문의: 교구평협 250-3057

미용인의 모임 <빛> 월례회

일자: 3.25(월) 20:00
 장소: 상인성당
 문의: (010)8397-9783

교육 | 모집

다문화 아카데미 봉사자 1단계 2기 교육

기간: 3.20~6.5(매주 수) 19:00~21:00
 장소: 교구청 별관 대화합실(6만 원)
 대구은행 083-13-166832 김명현

문의: 대구가톨릭대 다문화연구소
 850-3606, 3978

파스카 청년성서모임 팀 모집

일시: 화~토 14:00~22:00
 단계: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요한, 사도행전
 문의: 255-1582

17차 어머니학교 모집

일시: 4.11(매주 목, 5주간) 9:30~14:30
 장소: 포항 장량성당 교육관
 회비: 10만 원
 문의: 2대리구청 743-7010
 봉사자 (010)6669-9746

4월 관덕정 성지순례

일자: 4.21(일) 감곡성당
 신청: 3.20(수)부터 선착순
 회비: 3만 원(중식 포함)
 문의: 관덕정 254-0151

가톨릭근로자회관 화·목 저녁반

4월 영여성경공부반 모집
 개강: 4.2(화) 19:00~20:30 월 3만 원
 과정: 창세기, 탈출기, 4복음(총 1년)
 문의: 253-1313 / (010)2578-5535

대구가톨릭문화관 강좌 교육생 모집

천연비누·화장품, 쉼트, 리본공예, 통기타, POP, 우쿨렐레, 바이올린, 플룻, 오카리나
 문의: 476-6211

가톨릭여성교육관 강좌

고려수지침: 4.2(화) 13:30
 문학 창작교실: 4.3(수) 14:00
 건강태극권: 4.5(금) 13:00
 웰다잉 아카데미: 4.11(목) 14:00
 문의 및 신청: 254-6115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 요양보호사 교육원 국가자격증 취득 과정 모집

접수기간: 1.2(수)~3.29(금)
 교육기간: 4.4(목)~6.28(금)
 장소: 교구청 교육원 가동 3층
 문의: 255-7222(교육비 50만 원)

안내

교구법원 공시

아래 공시되는 분은 교구법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혼인에 대해 문의할 것이 있습니다.
 성명: 장태자(요안나), 권미희(안젤라) 최중태(빈첸시오 아 바울로)
 문의: 253-9550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국내입양전문) 입양미혼모상담

문의: (02)764-4741~3
 www.holyfcaec.or.kr

2013년 대구대교구 주소록 판매

가격: 3천 원, 총 90쪽
 문의: 교구 문화홍보실
 250-3048~9

신앙과 함께하는 정신 재활 치료

대구정신병원

원장 배임표(요한) 신부

T. (053)630-3000~1

평일: 09:00-17:30 토요일: 09:00-12:00
 위치: 대곡역사거리-대곡역그린빌 방향 500M

책임보험 1억 가입업체

도우미익스프레스

포장이사·사무실이사·일반이사

대표 양말순(루시아)

591-2424 · 656-9911
 010-2008-2329

팡팡스크린골프존

이 남 희 (세례자요한)

T. (053)571-6611~2

· 서부초등학교 · 학교 앞
 · 세무초등학교 · 대우초등학교
 · 대우초등학교 · 대우초등학교
 · 동서주와 6대개항(1,000평 대지) · 스크린 9층 · 실내연습장 7억 원비

16년 경력, 보증보험가입

"이현숙의 결혼이야기"

국내 2006,04 매일신문 인터뷰 (피플 "세상속으로")
 국제 2009-2010 경북 공무원 교육원 다문화강사

054)458-3223 수신나 010-6571-3385

리스투리결혼정보
 구미시외버스터미널 본관2층

비염·축농증

코 질환 집중 치료

대구수성점 코비한의원

대표원장 이 판 제(투카)

☎ 053-753-9795 수성구청 4번 4층 앞

라식, 백내장 수술 전문안과

대구연세안과

아이락식^{인비}, 안내렌즈, 노안수술

의 학 박사
 현, 연세대의료교수 원장 박 중 원(소시모)
 (지하철 1호선 영대병원역 2번 출구)
 ☎ 626-8881~5

新대구정신과

New Daegu psychiatric clinic

불면증, 갱년기 우울증, 불안, 치매
 식사장애(거식증, 폭식증), 비만, 스트레스
 원장 · 전문의 김 경 윤(라파엘)

지하철 2호선 감삼역 2번 출구 앞
 T. (053)566-0364

소변에 거품이 나십니까?

수내과

[부설 : 인공신장실]

경북대병원 외래교수 김 현 권(라파엘)
 상인역 ☎(053)642-7575